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4, No. 4

OPEN ACCESS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자료 수집전략 연구*

A Study on the Collection Strategies of Library Materials for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김 신 영 (Sin-Young Kim)**
박 옥 남 (Ok nam Park)***

〈 목 차 〉

Ⅰ. 서 론
Ⅱ. 주요 선진국 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수집 동향
Ⅲ.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자료 수집전략
Ⅳ. 결 론

요 약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법률 제16685호) 제24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6월 4일자로 지위가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되었으며 현재 독립청사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중심의 자료 개발 및 제작 지원에 주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적 지위를 확보한 이상,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연구자에게 유용한 국내외 대중·학술자료의 포괄적 수집을 전제로 특화된 국립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을 표방해야 한다.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현 단계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전국 장애인서비스를 총괄·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장애인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법정 업무 중에서 요체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료의 포괄적·전략적 수집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정보자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지적 욕구 충족 및 장애 관련 교육·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자료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한 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현행 장서개발정책을 기반으로 장애인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실행 전략과 중장기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자료, 장서개발, 장애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ABSTRACT :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was upgraded to a primary affiliated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n June 4, 2020,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1) of the Library Act (Law No. 16685).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is currently preparing to build an independent library building. Now that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has secured its independent legal status, it must become a specialized national library by comprehensively collecting not only alternative materials for the disabled, but also domestic and foreign materials useful to researchers related to the disabl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basic research for comprehensive and strategic collection of library material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is an essential part of the statutory work of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To this end, the concept and category of library materials for the disabled that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satisfying the intellectual needs of the disabled and for education and research related to the disabled were established targeting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produced and distribut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Next, based on the curren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an implementation strategy and mid to long term roadmap for comprehensively collecting library materials were presented.

KEYWORDS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Library Materials on the Disabled,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Disabled Person, Library Servic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 본 연구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nyoung@daegu.ac.kr / ISNI 0000 0004 7390 3462) (제1저자)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ponda@smu.ac.kr / ISNI 0000 0004 7475 8746)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3년 11월 21일 • 최초심사: 2023년 11월 27일 • 게재확정: 2023년 12월 11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4), 123-150, 2023. http://dx.doi.org/10.16981/kliss.54.4.202312.123

※ Copyright © 202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난 2007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로 출범하였으며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이후 2012년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승격되었으나 여전히 국립중앙도서관 하위기관으로 존속해 오다가 2019년 12월 3일 자로 일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16685호) 제24조제1항(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에 따라 2020년 6월 4일 자로 지위가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되었으며, 현재 독립청사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12가지 법정 업무(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작·제작 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그 밖에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정보접근·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추진 및 관련 연구지원 역량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 도서관(장애인, 공공, 학교, 대학 등)의 장애인서비스를 지원·협력하는 구심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중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법정 기구화 및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고,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속히 국립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적 과제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작·제작 지원'이며, 그것의 출발점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충실한 자료 개발이다. 그동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으로 존속하면서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중심의 자료 개발 및 제작 지원에 주력해 왔으며 그 실천 전략으로 대체자료 확충방안(Yoon & Kim, 2011)과 대체자료 중심의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국립장애인도서관, 2013)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된 법적 지위를 확보한 이상,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뿐만 아니라 장애인 연구자에게 유용한 국내외 대중·학술자료의 포괄적 수집을 전제로 특화된 국립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을 표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법정 업무 중에서 요체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료(이하,

장애인자료)의 포괄적・전략적 수집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정보자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지적 욕구 충족 및 장애인 관련 교육・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자료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한 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현행 장서개발정책을 기반으로 장애인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실행 전략과 중장기로드맵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존 장서개발정책 기조를 반영하되 독립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장애인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명실상부한 국립 특화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전략 제시에 방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자료의 개념규정과 수집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수집・제공하면서 후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장애인자료'는 장애인을 위해 생산・제작된 인쇄형 및 전자형 대체자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대중)자료, 장애인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교재・학술서・전자잡지・Web DB 등을 아우르는 교육학술자료를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되, 본 연구에서는 대체자료를 제외한 '장애인용 일반(대중)자료와 장애 관련 교육학술자료'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중심의 수집 및 제작 지원에 치중하였다면 향후에는 장애인 및 관련 이해집단을 아우르는 장애인서비스의 구심체로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과 이해관계자 집단을 최대한 지원할 목적으로 장애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수집방법별, 자료유형별, 주제별, 이용집단별 수집전략을 제시하였다.

셋째, 장애인자료 구성은 법정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전국 장애인 및 이해집단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선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기반으로 설정하고,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단계적 수집계획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를 위한 방법은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자료 수집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학술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정책문서, 웹정보자원, 통계데이터, 웹사이트 등 이론적 정보와 관련 자료, 국내외 출판동향 및 장애인 관련 자료의 생산・유통 현황 자료, 장애인의 정보요구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주요 선진국 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수집정책과 서비스 현황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수집전략과 중장기계획안을 수립하였다.

Ⅱ. 주요 선진국 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수집 동향

1. 미국 NARIC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LCNLS(Library of Congress 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rint Disabled)가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도서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독서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체자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CNLS가 점자나 녹음자료 등 대체자료 중심의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다면, 국립재활정보센터(National Rehabilitation Information Center, 이하 NARIC)의 경우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7년 설립된 NARIC은 국립장애자립생활재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Independent Liv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 이하 NIDILRR) 산하 도서관으로 장애인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장애, 장애인의 자립, 장애인 재활 등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제공하는 전문도서관이며 정보포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ARIC의 장애인자료 개발과 서비스의 특징은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다. NARIC이 수집에 주력하는 장애인자료는 장애 관련 연구논문, 보고서, 학술지, 연속간행물, 교육자료 및 교과목 정보, 가이드북, NIDILRR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받은 각종 출판물 등이다. 특히 NIDILRR 관련 자료는 연간 약 250건씩 추가되며, 장애인의 건강, 정보기술, 자립, 재활, 역량제고 등과 관련된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표 1〉 NARIC의 장애인자료 개발과 서비스 특징

구 분		내 용
법적 지위와 성격		• 미 보건복지부 산하 NIDILRR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 관련 전문도서관
자료선정기준		• 현재 또는 중장기 계획과의 관련성 • 현재 주요 이슈 또는 뉴스 보도와의 관련성 • NIDILRR지원사업과 관련된 주제 • 우선 조건: 저작권, 역사적 중요성, 법적 의의, 희소성 또는 취약성
자료수집	방법	• 구입 및 기증(주로 도서와 연구보고서)
	주제	• 장애 및 재활과 관련된 주제 세분화(장애인 옹호/보호, 노화, 보조 기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화상, 부상, 간병인,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 교육, 고용, 재활서비스, 장애 관련 정보 일반(스페인어), 자립생활, 정신건강, 감각 장애, 척수 손상, 뇌졸증, 외상성 뇌손상 등)
소장자료수 및 특징		• 장애 관련 도서 약 65,000권 • 1977년 설립 이후 장애 관련 도서, 논문, 해외 연구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망라적 수집하고 있음 • 장애관련 정보포털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NIDILRR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 우선 수집
주요 서비스 대상		• 장애인, 일반인, 연구자

또한 NARIC은 〈표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장애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미국 전역의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REHABDATA는 지체장애, 정신장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직업재활, 특수교육, 보조기기, 법률, 고용 등 장애인과 관련된 현행 및 소급자료 약 8만여 건,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보고서, 초록 정보 약 12만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연간 약 4천건의 신규 데이터가 추가될 정도로 방대한 규모이며, 장애 관련 주제어 시소러스를 통한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NARIC Knowledgebase는 NARIC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이용자에게 제공한 참고정보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데이터파일이며, NIDILRR Program DB는 모체기관인 NIDILRR의 연구보고서와 프로젝트 정보를 담고 있다. 한편, NARIC은 큐레이션 서비스인 NARIC's Librarian's Picks에서 〈표 3〉과 같이 장애 관련 18개 주제별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2〉 NARIC의 장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구 분	내 용
REHABDATA	• 방대한 규모(연간 약 4천건의 신규 데이터 업데이트) • 장애 관련 주제어 시소러스 개발과 검색 지원 • NARIC이 소장하고 있는 약 65,000권의 도서목록 • NIDILRR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연구논문, 재활 관련 정기간행물 기사 • 국제재활연구정보교환센터(CIRRIE)에서 수집한 국제적 연구자료, 상업적 출판물(도서)과 미간본자료 • 약 50년(1956년~현재)동안 축적된 지체장애, 정신장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직업재활, 특수교육, 보조기기, 법률, 고용 등 장애인과 관련된 문헌자료 약 8만건 •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보고서 초록 정보 약 12만건 등
NARIC Knowledgebase	• 1996년부터 현재까지 제공한 약 3,000건 이상의 참고정보서비스 데이터파일을 수록
NIDILRR Program DB	• 1986년부터 현재까지 NIDILRR 기금으로 수행한 약 2,800건의 프로젝트 정보 수록 • 연구자 이름 및 연락처 정보, 프로젝트 요약 및 관련 정보원에 대한 링크 제공

〈표 3〉 NARIC의 장애 관련 주제의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현황

구 분	내 용
옹호·보호	주택, 고용, 교육 및 서비스, 편의 시설 및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장애가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40년간 통과된 연방법 및 주법 관련된 정보
노화	장애인 및 비장애인 여부와 상관없이 노인과 그 가족이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 등으로 인한 혜택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기술·지역사회서비스에 관련된 정보
보조기술	장애가 있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청기, 휠체어, 인체공학적 키보드 등의 다양한 보조기기 관련 기술과 보조기기개발센터에 관련된 정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치료 서비스, 보건전문가, 교육전문가의 기술·교육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에 관련된 정보
화상, 부상	화재로 인한 화상을 입은 시민 혹은 부상을 입은 시민의 회복을 위한 의료 재활 프로그램, 물리 치료 서비스, 보조 기기지원 등에 관련된 정보
간병인	가족 간병인을 위한 교육, 동료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및 민간 서비스, 간병인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요양원 시설 등에 관련된 정보

구 분	내 용
특수아동	특수아동을 위한 연방 정부의 조기 개입 및 특수 교육 프로그램, 장애지원 및 가족상담센터의 교육·상담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등에 관련된 정보
교육	아동, 청소년, 대학생, 성인, 학부모 등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봉사 서비스, 교육 정책 등에 관련된 정보
고용	취·창업정보제공센터의 지역 장애인 청년 일자리 알선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고용관련서비스, 장애인 고용정책 및 평등한 고용기회 제공과 직업차별에 관한 연방법 및 주법과 관련된 정보
재활서비스	장애인 혹은 그 가족 및 간병인을 위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 시설, 의료기관, 재활 전문가의 다양한 고품질의 의료 재활 프로그램, 재활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
(스페인어) 장애관련 정보 일반	스페인어 사용자를 위한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미국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미국 교육부의 교육 및 고용 기회 등의 재활 및 장애 자원에 관련된 정보
자립생활	장애인 및 비장애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내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 교육, 기술 지원, 저소득 아파트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정보
정신건강	정신장애 및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시청각 자료 제공 서비스, 정신건강 센터의 지역사회 서비스, 24시간 무료 치료 서비스 등에 관련된 정보
감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후각 및 미각 장애, 체성 감각 장애 및 균형 장애를 통칭하는 감각 장애를 지닌 시민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후원 서비스, 보조기기 및 기타 지원서비스에 관련된 정보
척수 손상	척추 손상, 마비 및 이동장애에 대한 정보 및 전문치료센터, 재활 및 보조기기지원센터, 의료재활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
뇌졸중	뇌졸중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국가 교육, 정보 및 자원 서비스, 장기요양을 위한 국가, 주 및 지역 차원의 간병인 지원·유지 프로그램, 재활 및 치료 서비스 센터, 재활 프로그램 선택 가이드 등에 관련된 정보
외상성 뇌 손상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장애, 기억상실, 우울증 및 기타 정신장애, 실어증 및 의사소통 장애 발병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의료 재활 프로그램, 과학적 진단 및 치료 지침개발, 보조 기술, 외상성 뇌 손상 생존 가이드 등에 관련된 정보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조성, 미디어 교육, 서비스 등에 관련하여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보

2. 영국 RNIB Research Library

영국은 국가도서관이 주도하는 장애인서비스 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며(윤희윤, 2022), 정부의 주무부처인 문화매체스포츠부가 Art Council England, Library Connected, The Reading Agency, Reading Sight(구, Share the Vision) 등 관련 단체 및 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료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Vincent, 2018).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는 민간의 왕립시각장애인협회(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 People, 이하 RNIB), National Talking Newspapers and Magazines, Calibre Audio Library 등이 관여하며, 이 가운데 장애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RNIB를 중심으로 장애인자료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NIB는 지난 2007년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National Library for the Blind, 이하 NLB)을 흡수·통합하여 지금의 공식명칭인 RNIB Research Library로 변경하였는데, NLB는 1882년 설립된 이래 125년간 영국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의 RNIB

Research Library는 〈표 4〉에 정리한 바와 같이 유럽 최대의 시각장애 전문도서관이자 리서치허브로 평가받고 있다. 시각장애와 관련하여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도서관으로 시각장애인용 도서 약 6만권과 비장애인이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약 2만권을 비롯한 학술지와 보고서 등 총 35만권의 장애인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역사・문화자료, RNIB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발간한 보고서와 각종 문서, 점자제작과 관련된 장비와 보조기기에 관한 사료, RNIB의 설립자인 Thomas Armitage와 Louis Braille의 사진과 기록물 등으로 구성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RNIB, 2021a).

〈표 4〉 RNIB Research Library의 장애인자료 개발과 서비스 특징

구 분		내 용
법적 지위와 성격		•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회원제 자선조직인 RNIB 산하의 연구도서관
장서개발정책		• RNIB Library Service Collections Policy에 근거하여 자료 수집
자료 수집	방법	• 자체제작, 구입, 라이선싱, 교환
	주제	• 소설과 비소설로 대별 • 비소설류는 59개의 주제로 세분하여 도서목록을 제공함 - 주거, 법률, 재무 회계, 역사, 건강정보, 전기서, 가족관계, 컴퓨터 및 IT, 취미생활, 도서관 및 박물관 정보, 애완동물, 어린이 보호 등 • 장애학 관련 주제
소장자료수 및 특징		• 총자료수: 약 35만건 - 점자도서: 약 22,000권 - 축약하지 않은 데이지형식 녹음도서: 약 30,000건 - 큰글자도서: 약 6,000권 - 음악자료: 액 2,000건 • 연구지원자료 - 장애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서 약 22,000권, 연속간행물, 보고서, 비디오, 팜플릿 등 • RNIB 및 유관기관의 보고서 및 주요 문서 등을 수집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함 • RNIB Library Service, Braille Learners' Library, RNIB Connect Radio 등 서비스 운영 • 소장자료(일반자료)의 매체변환(장애인이 요구하는 포맷으로 제작)
주요 서비스 대상		• 장애인, 일반인, 장애 관련 연구자

RNIB Research Library의 장애인을 위한 자료는 소설과 비소설로 대별하고 있는데, 비소설류는 59개의 세부 주제(전기서, 가족관계, 정원가꾸기, 컴퓨터 및 IT, 취미생활, 도서관・박물관 정보, 애완동물, 주거, 법률, 재무 회계, 역사, 건강정보, 어린이 보호 등)로 구분하여 주제별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RNIB Research Library가 수집하지 않는 교과서나 교재 등의 경우는 RNIB Bookshare가 제작・배포를 담당하고 있다. RNIB Bookshare는 RNIB와 1972년 설립된 난독증연구소(Dyslexia Action)가 교육부 기금을 지원받아 설립한 단체로서 영국 내의 약 12,500개 학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교육자료 및 교재의 제작 및 보급에 참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난독증, 자폐증, 지체장애를 가진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RNIB, 2021b).

3.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DL)

일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서비스는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이 주도하며 전국의 점자도서관, 공공도서관, 전국시각장애인정보제공시설협회(全国視覚障害者情報提供施設協会)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윤희윤, 2020). NDL의 장애인자료 개발과 서비스의 특징은 〈표 5〉에 정리한 바와 같다.

〈표 5〉 일본 NDL의 장애인자료 개발과 서비스 특징

구 분		내 용
법적 지위와 성격		• 국가도서관으로 관서관의 도서관협력과가 장애인서비스 총괄
장서개발정책 및 자료선정기준		• 「자료수집지침」과 「자료수집방침서」에 근거하지만 장애인자료 관련 기준은 규정하지 않음 • 법정 사무와 장애인서비스 실시계획(2021-2024)에 따라 장애인자료의 개발과 제작 등 다양한 업무와 서비스 제공
자료수집	방법	• 제작(자관 소장 학술문헌의 제작), 구입, 수증, 교환
	주제	•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사피에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학술문헌을 중점 수집 • 학술문헌의 매체변환(DAISY, 녹음자료)
소장자료수 및 특징		• 점자·큰글자자료 등 48,382권/점(2021.12 기준)
주요 서비스 대상		• 독서장애인 • 내관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협력도서관을 통한 서비스, 마라케시 조약 기반의 국제서비스,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에 대한 서비스
특징		• 소장 학술문헌의 제작(DAISY, EPUB, 텍스트 데이터)

NDL은 지난 2021년 3월 「국립국회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실시계획(2021-2024)」을 발표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国立国会図書館, 2021). 일본은 2019년 1월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했으며 이에 법 정비의 일환으로서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2021년 법률 제49호. 이하 「독서배리어프리법」)이 같은 해 6월에 공포·시행되었다. 「독서배리어프리법」 기본계획은 국가시책으로서 국립국회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NDL은 2021년 1월 「국립국회도서관 비전 2021-2025: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시프트」를 발표하였고, 동년 3월에는 유니버설 액세스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자료의 확대 수집과 검색·접근할 수 있는 체제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장애인서비스 실시계획을 추가로 수립·발표한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한 총괄은 관서관의 도서관협력과가 담당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유형별 장애인 이용자에게 도서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① 장애인을 위한 자료의 충실화, ② 원활한 이용을 위한 지원의 충실화, ③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④ 장애인 접근성을 지원하는 전자책 도입 촉진, ⑤ 서비스 환경 정비, ⑥ 서비스 인력 양성, ⑦ 타 기관 등과의 제휴, ⑧ 홍보 등 8개 영역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자료의 확충과 관련하여 〈표 6〉에 발췌·정리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및 사피에도서관이 수집하지 않는 학술도서의 중점수집과

기존 NDL이 소장하고 있는 전문도서를 장애인용 대체자료로 매체변환하여 제작하도록 제시한 실천계획은 참고할 부분이다. NDL이 소장한 일반자료 가운데 학술서(입문서, 개론서), 교양서, 교과서 및 각종 시험대비 참고도서류, 음악자료 및 실기지도서, 문학(소설, 시가, 희곡 등)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로 제작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특히 제작기간의 단축과 제작자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즉, 텍스트 데이터나 녹음도서(DAISY 형식)로 제작할 때 OCR(광학문자인식장치)로 종이 글씨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과정에서 미교정 텍스트(오인식에 의한 오자나 레이아웃 무너짐 등에 대한 교정을 하지 않음), 교정 텍스트(원본과 비교하여 교정작업을 거침), 전자책(EPUB으로 구조화된 텍스트) 등으로 이용자에게 선택지를 부여하여 긴급을 요하는 자료에 대한 빠른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표 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실시계획(2021-2024)」의 관련 내용 발췌·정리

구 분	내 용
2.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충실화	2.1.1 학술 문헌 녹음 DAISY 자료의 제작 독서장애인을 위하여 당관이 소장한 전문학술자료의 녹음 제작 2.1.2 학술문헌 녹음테이프의 매체변환: 열화에 의해 음성 데이터의 소실이 우려되는 당관 제작 학술문헌 녹음테이프에 대해서 보존 및 활용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DAISY규격으로 매체 변환을 실시한다. 2.1.3 시각장애인 텍스트 데이터의 제작 2.1.3.1 당관 소장 전문학술서적의 텍스트 데이터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한다. 이때 교정 완료하고 구조화된 텍스트 데이터(정확성과 편리성을 중시한 것)와 미교정 텍스트 데이터 및 화상 데이터(제작 기간의 단축과 제작 수량을 중시한 것)로 선택지를 두어 준비하고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적 요구와 양적 요구 모두에 대응한다. 2.1.3.2 수식이 포함된 학술문헌의 텍스트 데이터 제작을 검토함에 있어 텍스트 데이터화가 곤란한 수식·화학식을 포함한 이공계의 학술문헌은 시범 제작 및 검증을 실시하여 제작·제공의 방법을 검토한다. 2.1.3.3 그림, 그래프, 사진 등의 시각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작성을 검토함에 있어 텍스트 데이터 제작 중에 학술문헌에 포함되는 도면, 그래프, 사진 등의 시각 정보를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작하며, 시각장애인 등에게 보다 알기 쉬운 설명을 하도록 검토한다. 또한 이때 제작사양을 공개해 타 기관의 텍스트 데이터 제작을 지원한다. 2.1.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에 있어 공공도서관으로부터의 꾸준한 수집을 계속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용 데이터 송신서비스나 사피에 도서관이 제공하지 않는 대학 등이 제작된 학술문헌, 아동서 등의 수집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2.1.5 각급 도서관의 시각장애인용 텍스트 데이터 제작을 위하여 시범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이 시스템을 이용한 개별 도서관의 텍스트 데이터 제작지원을 검토한다. 2.1.6 디지털 자료의 활용을 검토함에 있어 OCR기능에 의해 디지털 자료로부터 생성된 텍스트 데이터를 시각장애인 등에게 제공할 것을 검토한다. 또한 OCR처리 정밀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의 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한다.

4. 호주 VAILS

호주는 1992년 국립장애인도서관서비스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의 해체 이후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지역사회지원부의 주도 하에 호주장애인정보네트워크(Disability Information Network Australia),

주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민간 장애인협회 및 단체가 연계하여 장애인서비스를 확장해왔다(Murray & Wallis, 1996). 다만, NLA의 장서개발정책은 국가장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호주에서 생산된 자료 및 해외자료에 대한 수집의 범위와 특성을 정의한 것으로서 장애인자료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Vision Australia의 장서개발정책(Collections Guidelines) 서문에서 Vision Australia Information Library Service(VAILS)는 전국의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며 호주 「저작권법(1968)」Part VB에 정의된 바에 의거하여 독서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체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Vision Australia, 2013).

Vision Australia는 시드니를 기반으로 한 왕립시각장애인협회(Royal Blind Society)로 출발했으며 지난 2004년 왕립빅토리아시각장애인협회(Royal Victorian Institute for the Blind), 국립정보도서관(National Information Library Services) 등을 합병하면서 현재와 같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Vision Australia 산하 도서관인 VAILS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유형별 장애인 즉, 책을 쥐거나 조작할 수 없는 경우(절단장애인, 심한 관절염이 있는 사람), 초점을 맞추거나 눈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다발성 경화증 환자, 뇌 손상 환자), 지각장애가 있는 경우(난독증 또는 시각 처리 장애가 있는 사람) 등으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주로 구입과 제작 방식으로 점자도서, DAISY 자료, 신문, 잡지, 참고자료 등을 입수하며, 최근에는 팟캐스트를 비롯하여 EBSCO Host를 통한 학술 DB까지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13년 마지막으로 갱신된 장서개발정책에서는 〈표 7〉과 같이 주제 및 자료 유형별 개발지침을 제시하고 있다(Vision Australia, 2013).

〈표 7〉 VAILS의 장서개발정책 일부 발췌

구 분	내 용
소설	미취학 아동, 저학년, 고학년,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모든 유형의 광범위한 문학작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설 컬렉션은 고전문학,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 이용자의 현재 관심을 반영한 인기 도서를 포함한다. 호주작가의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며, 해외에서 출판된 대표작품도 수집한다.
비소설	도서관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주제 분야에 걸친 균형 잡힌 최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산을 고려하되 모든 주제에 있어 중요한 소급자료도 포함한다.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연령층 별로 적합한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	지역사회의 폭넓은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한 교과서는 수집·제공하지 않는다. 비소설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서관은 다른 기관이 보유한 대체자료의 단순 복제가 아닌 신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주민자료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원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주민 공동체와 협의하여 원주민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이 컬렉션은 접근 가능한 자료의 포괄적인 컬렉션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한다.
참고자료	참고질의에 응답하고 주제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하며 심층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광범위한 주제의 참고자료를 수집한다. 해당 주제에 대해 권위가 인정된 참고자료를 수집한다. 참고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형으로 우선 수집하며 가능한 최신판으로 수집하고 교체한다.

구 분	내 용
지역사 및 가족사	지역사 및 가족사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예산을 고려하여 도서관 상호대차 또는 추천을 통해 추가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구술사 자료는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며 호주 사회와 변화하는 가치 및 태도에 대한 목격담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수집한다.
신문 및 연속간행물	인기 있는 연속간행물부터 특정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정기간행물에 이르기까지 도서관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많은 지역 및 중앙지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음성지원 매체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모든 정기간행물과 신문 구독은 매년 검토되며 예산 범주 내에서 이용자의 추천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커뮤니티 언어	도서관은 가능한 경우 호주 내 지역 언어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이용자에게 소설과 비소설 컬렉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티 언어 자료는 저작권 및 이용자 규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시각장애인협회 등을 통해 제공한다. 호주공공도서관 네트워크는 다수의 영어 학습 오디오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독서장애인이 이 컬렉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어린이자료	Vision Australia는 어린이도서관인 Feelix Children Library의 챕터북, 점자도서 등을 통하여 취학전 아동의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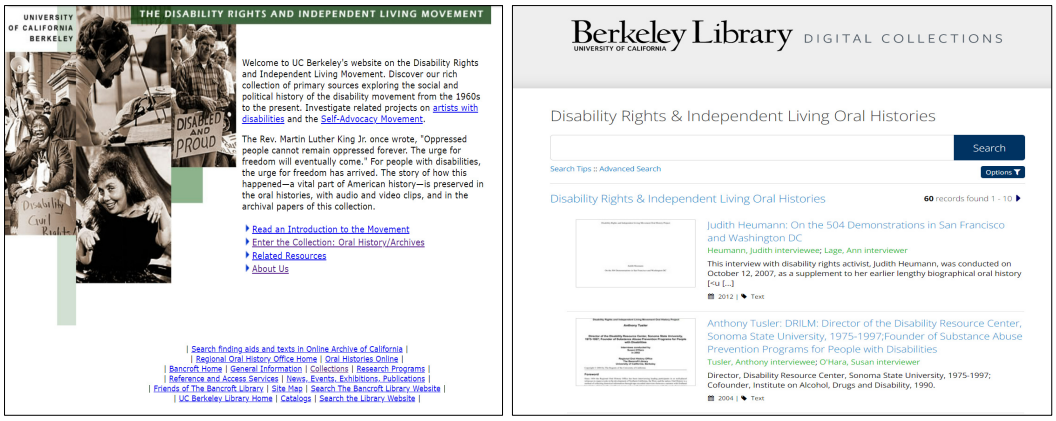
VAILS가 수집하는 모든 자료는 윤리적,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이유로 거부되지 않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포괄적으로 수집하며 독서장애인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자료 요구에 최대한 신속하고 다양한 접근 가능 형식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집한 자료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매체변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만 경우에 따라 제작 시간 및 비용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체자료는 발췌문이나 개별 페이지 및 일부 챕터 단위로 제작 혹은 구입하지 않으며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 및 전달되며 영구보존을 위한 품질의 완전성을 평가하여 수집하고 있다. 자제제작 자료는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호주자료, 이용자의 희망자료, 수상 경력이 있는 베스트셀러, 컬렉션으로서 이전에 제작된 시리즈물 등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구입 대상 자료는 수상 경력이 있는 베스트셀러, 이용자 요구가 많은 상위 20개 주제자료를 집중적으로 고려하되 선호도가 높은 작가의 작품을 우선 선정하고 있다.

5. 기타

국가도서관 혹은 전국 규모의 민간도서관이 주도하여 장애인자료를 수집・서비스하는 사례 외에 대학도서관 과 연구소도서관이 구축한 장애학컬렉션 및 아카이브 가운데 참고할 만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ancroft Library는 〈그림 1〉과 같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인권 및 자립과 관련된 논문,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기록, 필사본, 희귀도서, 귀중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고 장애인 인권운동 관련 연구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도서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집한 소급자료 내지 귀중자료를 바탕으로 DRILM(Disability Rights and

Independent Living Movement)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국립장애재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의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구축한 1960-70년대 활동했던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구술자료 100여건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에서 텍사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활동한 인권운동가의 구술자료까지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장애인 예술가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수집하고 있다.



〈그림 1〉 Bancroft Library 장애인 인권 및 독립생활 관련 구술자료컬렉션 서비스

다음으로 인디애나대학(Indiana University) 부설 연구소인 인디애나장애커뮤니티연구소(Indiana Institute on Disability and Community)의 산하 도서관으로 관련 도서, 학술지, 잡지, DVD, 녹음자료, 온라인자료 등의 장애학컬렉션을 구축하고 있으며, 〈표 8〉과 같이 LC주제명표목에 근거하여 장애인 일반, 자폐아, 자폐증, 특수교육, 정신장애, 발달장애, 장애아동학습, 포괄적 교육, 사교 기술 등 주제어로 접근 가능한 자료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

〈표 8〉 인디애나대학도서관 장애학컬렉션 수집 상위 주제어(LCSH)

주제어(LCSH)	건수	주제어(LCSH)	건수
People with disabilities	585	Developmentally disabled--	133
Autistic children	562	Autism in children	129
Children with disabilities	495	Asperger's syndrome.	123
Autism.	270	Autistic Disorder	122
Autism--	225	Learning disabled children	120
Asperger's syndrome--	207	Inclusive education	118
Special education	190	Children	116
Autism in children.	181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ren-Education	116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161	Social skills	112
Autistic people	144	Early childhood education	108

한편 아이오와대학(University of Iowa) 장애개발센터(Center for Disabilities and Development) 내의 도서관인 Disability Resource Library는 전 연령에 걸친 유형별 장애인 및 양육자, 유관기관 종사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다. DRL홈페이지에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에 관한 정보를 중점 수집함'을 명시하고 있어 장서개발의 기본원칙을 짐작케 하며, 자료의 약 60%는 아이오와주립도서관(State of Iowa Library)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장애 관련 전문자료이다. DRL의 소장자료는 장애 관련 도서, DVD를 포함한 시청각자료, 교육프로그램 정보, 소프트웨어 및 보조기기 관련 정보, 전자자료, 참고자료 이외에도 아이오와대학도서관의 학술DB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장애 관련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가 담긴 소책자, 브로셔 및 파일,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CDD 임상의가 엄선한 치료용 장난감 및 장비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전담직원의 연구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지역주민, 관련 연구자는 관내내지 우편대출을 통하여 자료이용이 가능하다.

6. 시사점

주요 선진국 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수집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장애유형별 이용자를 고려한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학술지와 논문, 팟캐스트, 팜플렛 등과 함께 학술 DB도 수집하고 있다. 즉, 매체별・유형별・주제별 망라적 수집을 통한 다양성 지원하며, 공공도서관이나 장애인도서관이 수집하지 않은 학술자료나 교육자료의 경우 장애인이 선호하는 유형의 대체자료로 매체 변환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독서장애인에 대한 자료 서비스는 물론 장애 관련 교육・연구 등에 관여하는 학생, 교사, 연구자, 기관・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도서, 학술지, 연구보고서, 상업용 DB 및 자체 구축 DB 등을 확보하고 전담직원을 통하여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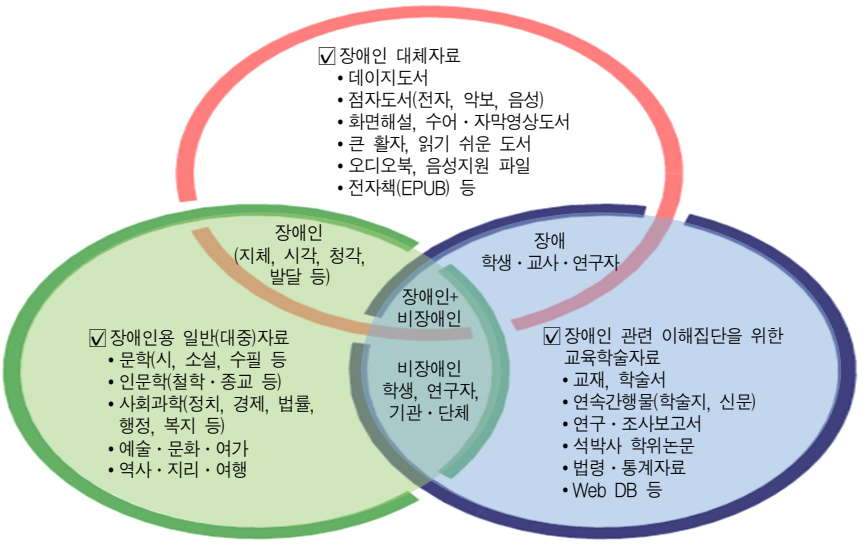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되,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분리하여 독립청사를 건립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부언하면 국가도서관의 주도하에 누적된 장애인 관련 대체자료, 일반자료 및 교육학술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실물자료를 포함한 전문자료의 개발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대체자료 중심의 자료 개발에 치중해온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수집전략은 차별화가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하위부서로 출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에 편중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에 대체자료 중심의 기존 장서개발정책(2013)을 보완하되 장애인자료를 전략적・단계적으로 확대 수집하여 250만 장애인과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그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Ⅲ.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자료 수집전략

1. 장애인자료의 정의 및 범주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 제3조 제2호는 '도서관자료'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동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법정 업무 제3호, 제5호와 제6호는 수집해야 할 자료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로 한정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법적 지위가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기관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전국 장애인은 물론 장애 관련 이해집단을 포괄하는 국가도서관으로의 법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체자료 부족현상의 조속한 해결과 그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대중)자료 확충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장애 관련 법제·정책·인권·심리·복지·노동·재활·의료·교육·연구 등에 관여하는 학생, 교사, 연구자, 기관·단체 등에게 다양한 교육학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자료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수집대상을 '장애인을 위한 자료'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대상의 교육기관(학교, 대학 등), 행정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 다양한 이해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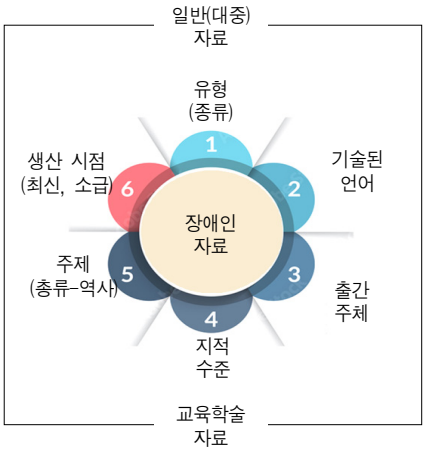


〈그림 2〉 '장애인자료'의 개념적 스펙트럼

이에 '장애인자료'는 〈그림 2〉와 같이 '장애인을 위해 생산·제작된 인쇄형 및 전자형 대체자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대중)자료, 장애인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교재·학술서·전자잡지·Web DB 등을 아우르는 교육학술자료'를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되, 본 연구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비교적 체계를 갖추고 집중 수집·제공하고 있는 대체자료를 제외한 '장애인용 일반(대중)자료와 장애 관련 교육학술자료'로 한정하여 장애인자료의 수집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 및 장애 관련 이해집단을 위해 수집 또는 개발해야 할 장애인자료의 범주는 유형, 언어, 출간·제작주체, 지적 수준, 주제, 생산 시점별로 구분하여 〈표 9〉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 가운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전국 장애인서비스를 주도하기 위해 수집해야 할 장애인자료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일반(대중)자료로 국내 자료 중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문학, 사회과학, 철학·종교 등의 주제별 도서 및 잡지이다. 둘째, 장애인 복지·의료·교육·연구 등에 관여하는 이해집단을 위한 교육학술자료로 국내외 학술서, 학술지, 조사연구보고서, 워킹페이퍼, 학위논문, 장애인 관련 선언·조약·협약, 법령정보, 통계데이터, 미소장 소급 원본자료 등이다.

〈표 9〉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범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유형	• 인쇄도서(대중서, 학술서) •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등) • 회색문헌(정부간행물, 보고서, 학위논문, 통계 등) • 팜플렛과 단매물(지도, 악보, 포스터 등) • 비인쇄자료(CD, DVD 등 시청각·마이크로) • 전자자료(책, 잡지, 신문, Web-DB, 파일)	
언어	• 한국자료(국내외에서 한국어로 기술된 자료) • 외국자료(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어 등)	
출간제작 주체	• 국내 행정·공공기관, 대학·연구기관, 민간단체, 상업출판사 등 • 주요 국제기구·단체(UN, WHO, OECD, WBU, IDA 등), 연구기관, 대학, 출판사 등	
지적수준	• 일반(대중)자료(문학, 사회과학, 철학·종교 등) • 교육학술자료(교재, 학술서, 학술지, DB 등)	
주제	• 십진분류표의 주류 기준(총류-역사)	
생산 시점	• 소급 자료: 필사본(1910 이전), 귀중서(1945년 이전), 희귀서 (국립장애인도서관 미소장) 등 • 현재 자료: 매년 출간·제작되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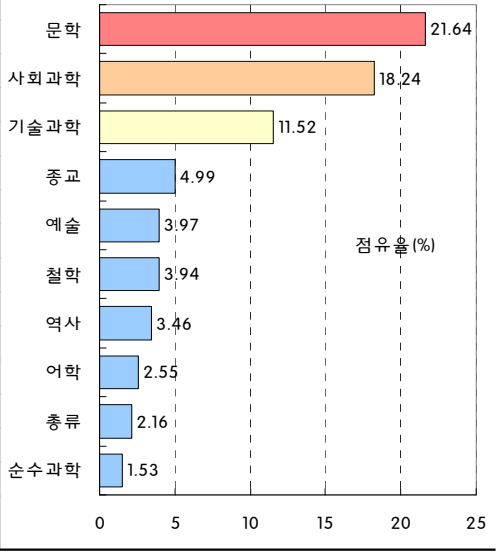
2. 장애인자료 수집원칙의 논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수집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려면 실제 출판시장에서의 주제별 생산 비중, 장애인의 매체별·주제별 선호도, 그리고 장애인의 의존도가 공공도서관 다음으로 높은 장애인도서관의 주제별 및 대체자료 구성을 분석·반영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대한출판문화협회(2022)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 자료를 근거로 집계한 2022년도 국내 도서의 주제별 신간 발행 종수 및 평균 가격은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주제별 비중은 문학(21.64%), 사회과학(18.24%), 기술과학(11.52%), 종교(4.99%)의 순으로 많았고, 기타 자료는 아동(13.81%), 만화(9.69%), 학습참고(2.50%)의 순으로 많이 생산되었다.

〈표 10〉 국내 도서의 주제별 출판통계(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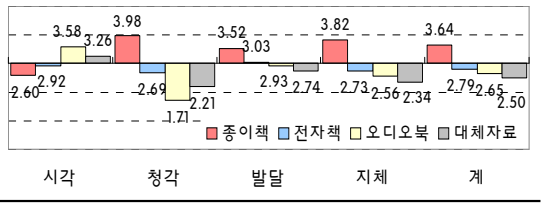
구분	구분	신간 종수	점유율%)	평균 정가	비고(주제별 점유율 순위)
주제	총류	1,321	2.16	22,863	
	철학	2,412	3.94	20,640	
	종교	3,051	4.99	17,656	
	사회과학	11,161	18.24	24,352	
	순수과학	934	1.53	22,627	
	기술과학	7,048	11.52	23,523	
	예술	2,426	3.97	22,740	
	어학	1,562	2.55	18,898	
	문학	13,238	21.64	14,493	
	역사	2,119	3.46	25,620	
	소계(평균)	45,272	74.00	(21,341)	
기타	학습참고	1,527	2.50	16,555	
	아동	8,451	13.81	12,674	
	만화	5,931	9.69	6,314	
	소계(평균)	15,909	26.00	(11,847)	
계		61,181	100.00	17,869	



다음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2022)이 최근 1년간 독서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선호하는 매체의 종류와 주제별 선호도는 다음 〈표 11~1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매체별 선호도는 종이책(3.64)이 가장 높고, 이어 전자책(2.79), 오디오북(2.65), 대체자료(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각장애인은 오디오북, 대체자료, 전자책, 종이책의 순으로, 청각장애인은 종이책, 전자책, 대체자료, 오디오북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제별 선호도는 성인의 경우 문학(47.5%), 사회과학(9.8%), 철학·종교(7.1%), 취미·오락(6.6%), 역사·지리(4.5%)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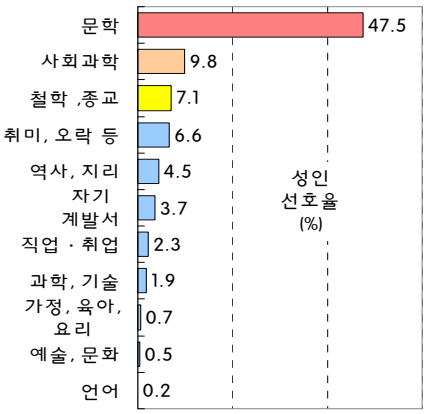
〈표 11〉 장애인의 매체별 선호도(5점 척도)

구분	매체 종류				비고(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대체자료	
시각	2.60	2.92	3.58	3.26	
청각	3.98	2.69	1.71	2.21	
발달	3.52	3.03	2.93	2.74	
지체	3.82	2.73	2.56	2.34	
계	3.64	2.79	2.65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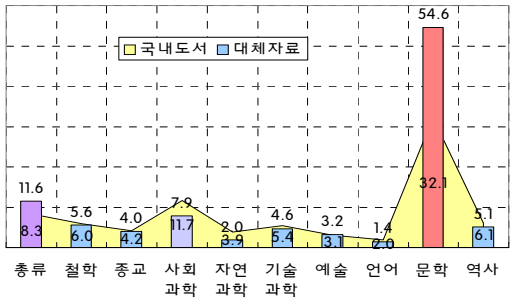
〈표 12〉 성인의 장애유형별 선호도서 분야(1순위, %)

구분	시각	청각	발달	지체	계	비고(KDC 주류 준용)
철학, 사상, 종교	4.0	5.9	1.3	8.7	7.1	
자기계발서	4.0	5.8	1.3	3.6	3.7	
직업·취업	2.2	3.4	1.4	2.3	2.3	
정치, 사회, 경영, 경제, 시사	17.0	4.8	2.0	10.3	9.8	
과학, 기술, 컴퓨터	2.0	2.7	3.7	1.6	1.9	
가정, 육아, 요리	0.1	3.1	1.2	0.3	0.7	
취미, 오락, 여행, 건강	5.2	4.0	6.6	7.3	6.6	
예술, 문화	0.1	1.1	2.6	0.1	0.5	
어학, 외국어	0.2	0.0	1.2	0.1	0.2	
문학(시, 소설, 수필)	55.3	44.1	35.4	48.2	47.5	
역사, 지리	3.8	4.1	3.6	4.9	4.5	
기타	2.0	0.0	0.7	0.0	0.3	



〈표 13〉 전국 장애인도서관의 주제별 국내도서 및 대체자료 비중((2021)

구분	국내도서		대체자료		비고 (국내도서 vs 대체자료 비율)
	종수	비율%)	종수	비율(%)	
총류	482.7	8.3	850.3	11.6	
철학	350.5	6.0	405.8	5.6	
종교	242.8	4.2	291.4	4.0	
사회과학	679.8	11.7	578.8	7.9	
자연과학	226.5	3.9	148.1	2.0	
기술과학	312.4	5.4	338.6	4.6	
예술	179.9	3.1	229.8	3.2	
언어	116.3	2.0	98.8	1.4	
문학	1,864.3	32.1	3,978.3	54.6	
역사	352.9	6.1	372.8	5.1	
계	5,807.6	100.0	7,292.8	100.0	



마지막으로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2021)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도서관(32개)이 소장한 국내도서 및 대체자료의 주제별 비중은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국내 일반도서는 평균 5,807.6권이며, 주제별 비중은 문학(32.1%), 사회과학(11.7%), 총류(8.3%), 철학(6.0%)의 순으로 많은 반면에 대체자료는 평균 7,292.8종인 가운데 역시 문학(54.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총류(11.6%), 사회과학(7.9%), 철학(5.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출판동향, 장애인 선호도, 장애인도서관의 주제별 국내 도서 소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집약되므로 이들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수집을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① 국내 도서의 주제별 출판 비중: 문학 〉 사회과학 〉 기술과학 〉 종교
② 장애인의 매체별 선호도: 종이책 〉 대체자료 〉 전자책
(다만, 시각장애인은 대체자료 〉 전자책 〉 종이책)
③ 장애인(성인)의 주제별 선호도: 문학 〉 사회과학 〉 철학·종교 〉 예술·문화
④ 전국 장애인도서관 주제별 소장 비중: 문학 〉 총류 〉 사회과학 〉 철학

3. 장애인자료 수집전략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수집·보존할 것인지 최종 수집목표 수준을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질적 정체성과 미래 지향성에 기반을 두되, 인적 역량 및 예산투입 여력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 단기 및 중장기 추진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자료를 수집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도서관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디지털 파일의 제출 요청 외에 구입, 수증, 교환, 대체자료 및 영인본 제작, 디지털 다운로드 및 아카이빙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제외하면 지엽적 및 보완적 수단에 불과하므로 신간 장애인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수집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신간 구입예산의 절대 부족에 대응하려면 단계별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

가. 수집방법별 전략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수집을 위한 실무적 수단에는 디지털 파일의 법적 제출 요청, 국내외 자료의 구입, 수증, 국제교환, 기탁, 복제·영인, 다운로드 및 디지털 아카이빙 등이 있으나 실효성이 약하고 실적도 미미한 국제교환, 기탁, 복제·영인을 제외한 법적 제출, 구입, 수증, 다운로드로 한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적 제출(납본)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자료를 수집할 때 적용하는 법적 근거는 「도서관법」 제24조 제3항(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이다. 이에 근거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제출을 요청받은 디지털파일자료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디지털파일자료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반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항에 근거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 및 이해집단을 위한 일반(대중)자료와 교육학술자료를 납본 수집하기 위해서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현행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에도 납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납본자 입장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이어 국립장애인도서관에도 납본해야 하므로 행정편의주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차선책으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호(국가등이 납본하는 경우 3부)와 나호(국가등 외의 자가 납본하는 경우 2부)에 따라 납본 수집하고 있는데, 후자인 나호의 납본부수를 3부로 개정한 후 국립중앙도서관이 가호와 나호에 따라 각각 수집하는 3부 중에서 1부를 국립장애인도서관(납본 보상비 부담)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반대 내지 소극적 입장과 피납본자 반발이 예상되므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2) 구입

도서관법령 개정을 통한 일반(대중)자료와 교육학술자료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관계법령 개정에 동의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수집・보존수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자료구입비를 투입하여 구입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용 일반(대중)자료는 최소 내지 선별적 수집수준에 따라 엄선 구입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이해집단을 위한 교육학술자료는 적극적 수집수준을 적용하여 국내외 자료를 구입하며, 미소장 및 소급 장애인자료는 포괄적 수집을 위한 중장기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원본 수집, 디지털 아카이빙, 영인본 또는 대체자료 제작 등의 방식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자료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자료를 수집할 경우, 이를 위한 구입대상 자료와 제외해야 할 기준은 〈표 14〉와 같이 제안하며 각각에 대한 세부지침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4〉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구입대상 및 제외기준

구분		장애인자료 기준
구입 대상	국내 자료	• 최신 일반(대중)자료 중 장애인이 선호하는 주제나 베스트셀러 자료 •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서 생산한 장애인 복지·의료·교육·연구에 관한 교재, 학술서, 학술지, 참고도서, 정부간행물,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집, Web DB 등 • 미소장 및 소급 장애인자료로서 구입·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 •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보유한 장애인자료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
	외국 자료	• 장애인 관련 사전·편람·용어집 등 참고도서 • 정부의 각종 장애인정책 수립 및 집행에 유용한 보고서, 통계집 등 • 장애인의 차별과 편견, 인권과 복지, 의료와 건강, 교육, 노동과 직업, 정보격차 등을 분석·연구한 자료(선언, 조약, 규칙 등도 포함) • 주요 국제기구, 국제 민간단체, 연구기관, 대학에서 생산한 장애인 관련 자료 • 한국 장애 및 장애인 관련 자료와 한국인이 외국어로 집필한 자료
구입 제외		•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기술하였거나 비하적인 표현이 포함된 자료 • 폭력, 살인, 성폭행 등을 잔인하게 묘사하거나 미화·조장하는 자료 • 저속한 언어, 외설적 표현이 과도하게 많이 기술된 자료 • 가족 및 사회의 도덕과 윤리, 미풍양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 및 사회의 체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자료

(3) 수증

수증을 통한 수집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절판, 복본 부재, 비매품 등으로 인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과거의 장애인자료를 수집하는 데 가장 유용한 전략이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전략적 접근 및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중장기 장애인자료 수증 수집계획'을 수립하고, 가칭 '국립장애인도서관자료수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증 수집을 위한 논거와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증을 촉진하기 위해 홈페이지, 방문 및 온라인 이용자, 프로그램 수강생 등을 통해 기증할 자료의 성격과 범주, 기증에 따른 예우(감사장 수여, 정부 포상 추천, 개인문고 설치, 평생이용권 보장, 기증도서 가액에 상당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수증방식으로 수집할 장애인자료의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원칙적 기준은 다음 〈표 15〉와 같이 제안하며, 실무적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사전 조사한 기초목록에 근거하여 수증 대상목록을 작성하고 소장처(개인, 기관단체)와 접촉하여 기증을 요청하는 등이 필요하다.

〈표 15〉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수증대상 기준

구분	장애인자료 기준
수증대상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소급 장애인자료 • 국내에서 발간·제작된 장애인자료로서 장애인 및 이해집단에게 유용한 대중자료 및 교육학술자료(학술서,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 • 주요 선진국에서 생산된 장애인자료 중 저자나 제작자가 한국인인 경우와 그 내용이 한국의 장애인, 장애인도서관 및 서비스와 밀접한 자료 • 기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수증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료

(4) 디지털 다운로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파일단위의 디지털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방법은 「도서관법」 제24조 제3항에 근거한 디지털파일의 제출 요청과 아카이빙, 직접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와 연계한 포털기능, 다운로드를 통한 디지털 아카이빙과 가상서고 구축이 있다. 그 가운데 전국 장애인자료센터 및 장애인 서비스를 대표해야 할 국립도서관으로서 미제출 디지털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한 전략은 북마크 기능을 활용한 연결서비스가 아니라 국내외 장애인 관련 주요 홈페이지나 사이트, 인터넷에 디지털 파일로 탑재된 장애인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그림 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보고서, 대학·연구기관의 자료, 인터넷 오픈 액세스(OA) 자료, 국내외 주요 장애인 관련 기구나 단체가 생산하는 디지털 파일을 다운로드해 장애인자료의 적극적 수집·보존 및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

〈그림 3〉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디지털 다운로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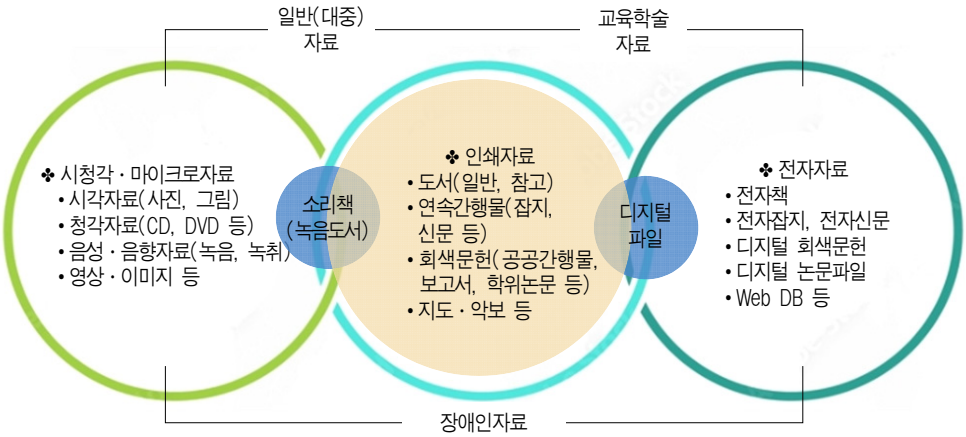
이를 위해 정부정책보고서는 포괄적 수집을, 국제 및 국내 기구·단체 자료는 적극적 수집을, 그리고 대학·연구기관 및 인터넷 OA자료는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 자료의 우선순위는 다음 〈표 16〉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표 16〉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디지털 다운로드 수증대상 기준

구분	장애인자료 기준
디지털 다운로드 우선순위	① 정부의 정책자료: 합동부처 및 유관부처의 정책 브리핑, 중장기 발전계획, 조사연구보고서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정책·계획 수립과 집행에 유용한 자료(행정안전부 PRISM, 부처별 홈페이지 등) ② 지방자치단체 및 출연기관의 자료: 장애인의 복지사업, 가족·보육지원, 의료·보건, 고용·직업, 자립재활, 교통편의, 활동지원, 정보격차 등에 관한 보고서 등 ③ 국내 대학, 연구소,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의 자료: 장애인의 교육·연구, 재활, 심리 등에 관한 교재, 학술서,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집 등 ④ 주요 국제기구, 국제 민간단체, 연구기관, 대학에서 생산한 장애인 관련 자료(선언, 조약 등 포함) ⑤ 한국의 장애인 및 장애 관련 자료와 한국인이 외국어로 집필한 자료 ⑥ 국립장애인도서관 미소장 및 소급 장애인자료로서 디지털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 ⑦ 장애인 관련 고아저작물로서의 OA 자료

나. 자료유형별 전략

장애인이 선호하는 매체(종이책, 전자책, 대체자료)는 앞의 〈표 1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5점 척도를 기준으로 2.5 이상이었고, 자료유형도 인쇄자료(도서, 잡지, 신문, 정부간행물, 보고서, 학위논문 등), 시청각자료, 단매물(악보, 지도), 팜플렛 등 매우 다양하므로 모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집해야 상대적 차별 내지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장애인자료(대체자료 제외)의 모집단인 장애인을 위한 일반(대중)자료와 장애 관련 교육·연구 등에 필요한 교육학술자료는 다시 그 유형에 따라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로 대별하고 실무차원에서 각 자료유형별로 선정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4〉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유형별 수집전략 전모

다. 주제별 전략

장애인(성인)이 선호하는 주제별 순위는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 장애유

형별로 일관성이 없음에도 대개 문학(장르소설, 일반소설, 시, 수필 등), 사회과학, 철학・종교, 예술・문화(취미, 오락, 여행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반면에 장애 관련 이해집단이 이용할 교육학술자료에 대한 주제별 선호도는 아래의 이용집단별 전략에서 제시하겠지만 장애 관련 정책, 인권, 발달심리, 복지와 의료, 노동과 고용, 재활・특수교육과 연구 등에 관여하는 교육연구기관과 공공기관 등 비장애 이해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의 주류 및 강목을 기준으로 주제별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표 17〉과 같이 매체・자료유형과 주제별 선호도를 조합한 매트릭스 모형을 제안하였다.

〈표 17〉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주제별 수집 매트릭스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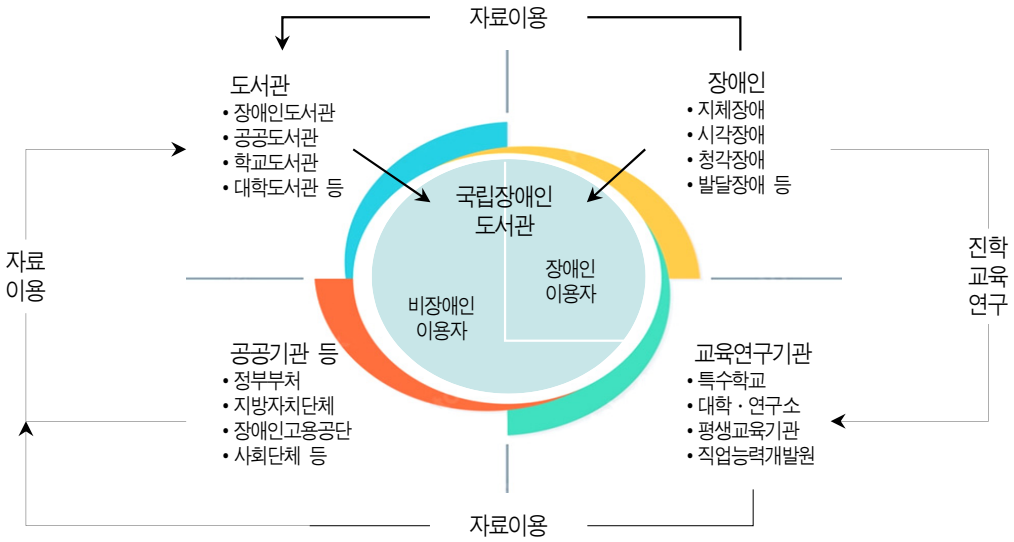
구분	주요 강목 및 키워드	매체・유형별 수집*			장애인 선호도 기반의 수집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최소	선별적	적극적	포괄적
총류	인문・문화, 책과 독서, 도서관・박물관, 매스컴, 컴퓨터, 인터넷 등	●	▲	●		✓		
철학	한국철학, 중국철학, 서양철학, 심리학(발달, 이상, 임상), 윤리와 도덕	●	▲	▲			✓	
종교	불교, 기독교, 도교 등의 교리, 경전, 법회, 신앙생활	●	▲	▲			✓	
사회과학	사회, 경제, 정치, 행정, 법률, 교육, 사회복지, 민속 등	●	▲	●			✓	
자연과학	자연, 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물학 등	●		▲	✓			
기술과학	기술, 의학, 농업, 환경, 건축과 주택, 전기・전자공학, 가정관리 등	●		▲	✓			
예술	미술,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음악, 예술, 오락, 스포츠 등	●	●	▲			✓	
언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교재 및 학습서	●	▲		✓			
문학	주요 국가별 문학 중 시, 소설, 수필, 서간, 유머 등	●	▲	●				✓
역사	역사, 지리・지도, 여행, 족보, 전기 등	●	▲	▲		✓		

* 비중: ● 높음, ▲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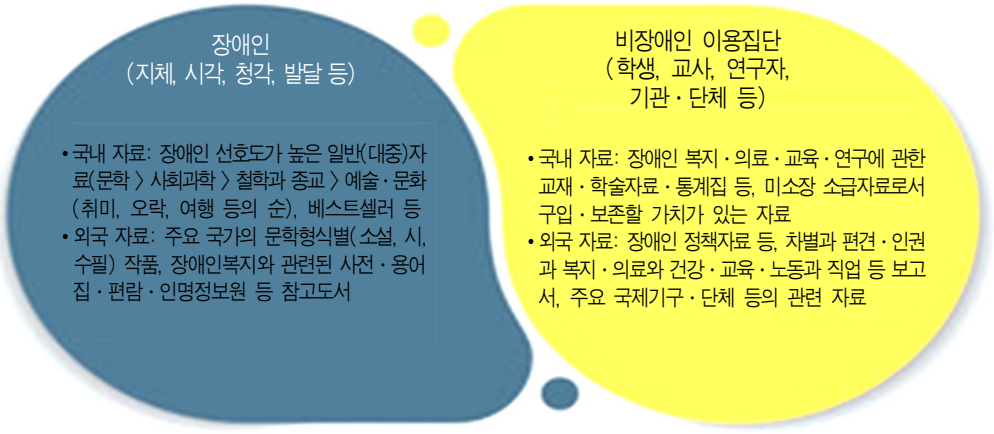
라. 이용집단별 전략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자료를 수집・제공할 경우에 현재적 및 잠재적 이용집단은 〈그림 5〉와 같이 장애인,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도서관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주류 이용집단은 장애인과 장애 관련 정책, 인권, 발달심리, 복지와 의료, 노동과 고용, 재활・특수교육과 연구 등에 관여하는 교육연구기관과 공공기관 등 비장애인 이해집단이다.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주류 이용집단별 장애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전략은 〈그림 6〉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각 이용집단별 전략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유형별 이용집단은 모든 장애인을 포괄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장애유형(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을 표적 집단으로 삼았다. 그들에게 장애인자료에 대한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호하는 일반(대중)자료는 '문학, 사회과학, 철학・종교, 예술・문화'의 순으로 우선 수집하되, 앞의 〈표 15〉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제에 따라 최소 수집하거나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잠재적 이용집단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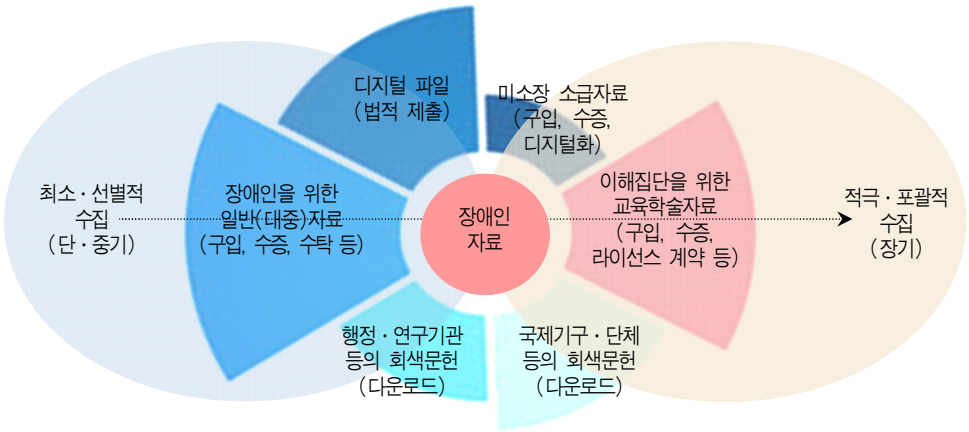
〈그림 6〉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이용집단별 장애인자료 수집전략

다음으로 비장애인 이용집단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외연을 전국 장애인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으로 확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용해야 할 대상을 말하며, 세분하면 특수학교 교사, 장애 관련 대학의 학생 및 교수, 장애인 법제·인권·심리·복지·의료·고용·정보격차 등에 관여하는 정부기관·공공기관·교육·연구기관·민간단체·시민사회 등을 포괄한다. 이들에게 장애인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생산된 교재·학술자료(Web DB 포함)·회색문헌·미소장 소급자료 등을 아우르는 교육학술자료를 적극적 내지 포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마. 기간별 전략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의 평등한 정보접근을 통한 정보복지 구현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3대 전략과 6개 추진과제 중에서 '전략 1. 정보평등 실현'의 추진과제(자료수집 강화 및 대체자료 제작 확대)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자료수집 기능 강화 및 소장자료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22).

그러나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인적 역량, 자료예산, 공간 등의 취약성을 감안하면 장애인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보존하기에 역부족이며, 수집해야 할 당위성과 현실적 역량 간의 간극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정 수집목표를 설정하더라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조만간 보존서고와 연구자 공간을 포함한 독립청사를 확보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제 하에 장애인을 위한 국내 일반(대중)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장애 관련 교육·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교육학술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그림 7〉과 같이 단계적 확대 전략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7〉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중장기 장애인자료 구성 모형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수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단기 계획의 지침 내지 준거가 될 뿐만 아니라 계획이 종료된 시점에 장애인자료 구성의 전모를 미리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중장기 장애인자료 구성은 법정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전국 장애인 및 이해집단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선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총 12년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표 18〉과 같이 제안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중장기 장애인자료 수집계획을 조속히 확정한 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력을 높여야 장애인의 도서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장애 관련 이해집단을 위한 자료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 외연 확장과 함께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8〉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중장기 수집전략

구 분	내 용
1단계 (2024-2026) 선별적 수집	• 장애인자료 수집을 위한 준비 및 선별적 수집 단계 • 기존 장서개발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장애인자료 수집계획'의 성문화 및 세부지침 마련 • 자료예산 및 자료개발 전담인력 확충 • 비장애인 이용집단(학생, 연구자, 기관단체 등)의 주제별 선호도 조사·분석을 전제로 국내 최신 장애인자료를 대상으로 문학, 사회과학, 철학·종교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소 수집하되, 점차 주제별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 관련 이해집단을 위한 교육학술자료 수집에 착수함
2단계 (2027-2030) 적극적 수집	• 기존 '중장기 장애인자료 수집계획' 및 세부지침의 개정·보완을 전제로 적극 수집하는 단계 • 국내 유관기관이 소장한 자료와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단체가 생산한 자료의 적극 수집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국내 장애인자료의 수증 수집과 국내외 장애인자료 중 디지털 회색문헌의 다운로드 및 아카이빙을 확대함
3단계 (2031-2035) 포괄적 수집	• 국내외 소급 및 최신 장애인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단계 • 국내 소급 장애인자료 수집력 강화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장애인자료의 수증·수탁 확대 및 개인문고 설치 • 1945년 이전의 필사본·귀중서·희귀서와 국내 다른 도서관·유관기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 대상의 킬러 콘텐츠 발굴 • 주요 인쇄형 장애인자료 중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의 디지털 마이그레이션과 국립 장애인자료 가상서고 구축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함

Ⅳ. 결 론

지금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위적 및 조직적 역량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정책 수립과 기준·지침 제정,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 대체자료 수집과 제작(2022년 말 기준 62,897책), 도서관 특수설비 연구 및 개발, 도서관 직원 교육 및 연수, 책나래(장애인을 위한 무료 우편서비스), DREAM(국가 대체자료 종합목록 및 공유시스템), 점자자료 출력서비스, 소리책나눔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에 주력하여 장애인 정보복지 및 접근·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현 단계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독립청사 확보와 함께 전국 장애인서비스를 총괄·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국내외 장애인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전국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도서관을 적극 지원하며, 학교·대학·정부부처·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장애인자료 요구 및 프로그램 운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능, 교육훈련, 지원협력에 앞서 장애인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대체자료로 변환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이유는 현 단계 존재이유와 본질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체일 뿐만 아니라

후대의 접근・이용을 보장하는 전략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포괄적 자료수집 노력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문헌 수집・보존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중심의 수집 및 제작 지원에 치중하였다면 향후에는 장애인 및 관련 이해집단을 아우르는 장애인자료 및 장애인서비스 구심체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자료를 수집할 때 고민해야 할 주요 변수는 법정 업무의 충실화를 통한 본질적 정체성과 대외적 위상의 강화, 현재적 및 잠재적 수집역량을 감안한 역할 분담 내지 협력수집 가능성, 통시적 자료수집의 당위성과 후대를 위한 부존자원화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장서수집의 기본원칙과 전략을 제시하여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 고 문 헌

국립장애인도서관 (2013).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 서울: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2022). 2022년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 서울: 국립장애인도서관.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 2022 한국출판연감.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윤희윤 (2020). 대륙별 국가주도형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주체와 내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1-25. http://dx.doi.org/10.16981/kliss.51.3.202009.1

윤희윤 (2022). 주요 선진국 민간주도형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분석과 시사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2), 1-23. http://dx.doi.org/10.16981/kliss.53.2.202206.1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2022).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國立國會図書館 (2021). 障害者サービス實施計畫 2021-2024. 東京: 國立國會図書館. 출처: https://www.ndl.go.jp/jp/support/service_plan2021_2024.pdf

Bancroft Library. Available: https://bancroft.berkeley.edu/collections/drilm/index.html

Indiana Institute on Disability and Community Library. Available: https://www.iidc.indiana.edu/library/index.html

Murray, J. & Wallis, L. (1996). Library services to Australians with disabilities. Health Libraries Review, 13, 81-89.

NARIC. Available: https://search.naric.com/

RNIB (2021a). RNIB Group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0/21. London: RNIB

RNIB (2021b). How RNIB is Governed. Available:

https://www.rnib.org.uk/sites/default/files/APDF-RE200612%20RNIB%20Governance%20Infographic-2021-v01.pdf.

RNIB Research Library. Available: https://www.rniblibrary.com/

University of Iowa, Disability Resource Library. Available: https://uihc.org/childrens/locations/disability-resource-library

Vincent, J. (2018). Libraries welcome everyone: six stories of diversity and inclusion from libraries in England. Art Council England: Brighton.

Vision Australia (2013). Vision Australia Information Library Service Collection Guideline Available: https://www.visionaustralia.org/services/library/collection

Yoon, Hee-Yoon & Kim, Sin-Young (2011). Development strategy of the alternative format materials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Aslib Proceedings, 63(4), 380-398.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orean Association of Library for the Blind (2022). Statistical Survey Report on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the Library. Seoul: The Association.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2022). 2022 Korean Publishing Yearbook. Seoul: The Association.

Libraries Act. Act No. 18547.

National Diet Library (2021). Disability service implementation plan 2021-2024. Tokyo: The Library. Available: https://www.ndl.go.jp/jp/support/service_plan2021_2024.pdf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13). A Study on Establishing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Seoul: The Library.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22). 2022 Survey on Reading Activ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eoul: The Library.

Yoon, Hee-Yoon (2020). A study on the main body and content of state-led library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contin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1-25. http://dx.doi.org/10.16981/kliss.51.3.202009.1

Yoon, Hee-Yoon (2022).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private-led library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major advanced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2), 1-23. http://dx.doi.org/10.16981/kliss.53.2.202206.1